붙임]

DU-도전학기 결과보고서

성명		학번	
단과대학		학과(전공)	
도전학기 과제명	**(한글) 클라시카 인문학적 상상력과 지리융합 연구** **(영문)**A Study on the Integration of Classica's humanistic imagination and geography		
지도교수 의견	1. 단테의 배경이 되는 이탈리아의 도시(피렌체를 비롯하여)를 방문하고 방문한 곳의 정보를 정리하였다. 2. 한빈 학생의 방문 소감을 정리하였으나, 매우 소략하여 보강할 필요가 있다. 3. 단테-신곡과의 연계성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4. 저술로의 질과 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5. 현재 보고서는 아래 과제 중 1,2가 완성되었고, (3)~(6) 부분이 미완성으로 보인다. (1) 「단테-신곡」 텍스트 완독 (2) 「단테-신곡」에 관련된 예술 작품과 도시들을 관람 - 프랑스의 파리, 이탈리아의 밀라노, 베니스, 피렌체, 로마 (3) 여행을 한 내용을 에세이로 작성하고, 사진촬영이나 작품을 통해서 기록 (4) 최종 컨셉 및 독자 설정 (5) 여행의 구성물들로 초안 작업 (6) 책 집필 6. 12월 26일~29일 편집자와의 집중 작업을 통해 작품의 품질을 고양할 것을 권한다.		

1. 도전 과제의 목표

-클라시카 인문학 교과목, 「단테-신곡」 의 배경이 되는 이탈리아를 이해한다.
-「단테-신곡」과 관련된 예술작품을 관람하고 그의 텍스트와 비교, 대조하여 다양한 시각으로 이해한다.
-이탈리아의 주요 도시에 가서 인문 명저의 배경과 문화유산을 탐방하고 연구한다.
-교과목에서 배운 내용을 지리와 결합하여 에세이로 된 도서개발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여행을 통해 인문, 지리, 역사, 예술 등 다양한 방면의 견문을 넓히고 이를 통해 분석적이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을 배운다.
-여행의 결과물인 '내가 만든 책'을 통해 나의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고 자신을 위해 여행하고자하는 청춘들의 열정을 증진시켜 길잡이가 된다.
-위의 목표를 성취함으로써 우리 대학의 '클라시카 교양학'의 이미지를 높여 전국적 브랜드로 확산한다.

2. 도전 과제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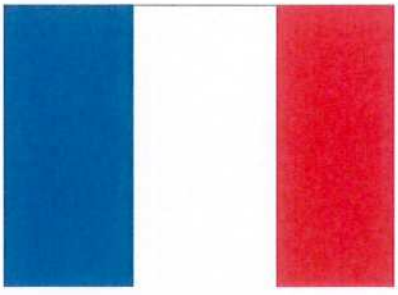
-클라시카 인문학 교과목, 「단테-신곡」을 수강한 후 신곡에 배경이 되는 국가의 주요 도시와 관련 작품을 관람한 후 에세이로 된 도서개발을 연구 한다.

(1) 「단테-신곡」 텍스트 완독
(2) 「단테-신곡」에 관련된 예술 작품과 도시들을 관람
- 프랑스의 파리, 이탈리아의 밀라노, 베니스, 피렌체, 로마
(3) 여행을 한 내용을 에세이로 작성하고, 사진촬영이나 작품을 통해서 기록
(4) 최종 컨셉 및 독자 설정
(5) 여행의 구성물들로 초안 작업
(6) 책 집필

-본인의 인문학 여행을 통해 개인의 도전의식, 시각, 문제해결능력 등 자기계발을 증진시키고 이를 책으로 엮어 타인에게 공유함으로써 대한민국 청년들의 인문학 관심을 도모하는 도전 프로젝트.

[여행 보고서]

프랑스



시간대	UTC+1
수도	파리
종족구성	켈트 족, 라틴 족, 슬라브족 등
공용어	프랑스어
종교	로마 가톨릭교(85%), 이슬람교(5-10%), 개신교(2%) 기타 (5%)
국제전화	+33
통화	유로화
인구	6,563 만 명

파리(Paris)

예술과 낭만의 도시로 유명한 파리. 세계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도시 1위로 프랑스의 수도이자 전체인구의 6분의 1인 천만 명이 살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교통의 중심지이며 세계문화의 중심지이다. 1860~1914년에 걸친 도시 계획에 의해 7-8층 이하의 건물만 짓도록 하여 도시 미관이 세계 최고수준이고 동서 12km, 남북 9km로 면적이 좁은 편이나 옛 성벽이었던 환상도로에 둘러싸여 낭만과 운치가 깃들어있다.

1. 루브르 박물관

목적 및 내용

루브르 박물관은 프랑스에서 제일 큰 박물관이다. 1190년 지어졌을 당시에는 요새에 불과

했지만 16세기 중반 왕궁으로 재건축되면서 그 규모가 커졌다. 1793년 궁전 일부가 중앙미술관으로 사용되면서 루브르는 궁전의 틀을 벗고 박물관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 이후 5세기 동안 유럽 외 다양한 지역에서 수집한 회화, 조각 등 수많은 예술품은 오늘날 30만 점 가량에 이른다. 루브르 박물관 [Louvre Museum] (저스트고(Just go) 관광지, 시공사) 1989년 중국계 미국인 건축가 '에이오 밍 페이'가 설계한 유리 피라미드는 루브르 박물관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다. 헬레니즘 조각의 걸작인 <사모트라케의 니케>,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모나리자> 등과 같은 걸작을 관람할 수 있다. 2층엔 19세기 프랑스 회화가 주로 전시돼 있는데 나는 들라크루아-단테의 보트라는 작품을 둘러보았다.

외젠 들라크루아 [단테의 보트]

당시 그리스·로마의 신화와 역사는 프랑스 살롱에서 너무 자주 다뤄져 신선함이 없었다. 갑자기 나타난 외젠 들라크루아이 작품은 신선함과 충격모두를 불러 일으켰다. 단테의 지옥이라는 금단의 주제를 이토록 폭발적으로 묘사한 그림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새로운 회화의 형식은 곧 낭만주의라고 불리게 됐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작품으로 언급되게 되었다고 한다. 신곡의 부분에서, 단테 알리기에리는 지옥을 안내하는 베르길리우스와 뱃사공 필레기아와 함께 배를 타고 스틱스 강을 건넌다. 이 그림에서 단테는 중세의 붉은 모자를, 베르길리우스는 월계수로 만든 관을 쓰고 있다. 뒤돌아 있는 뱃사공 프레기아스는 푸른색 천을 덮고 노를 젓고 있다. 배경으로 왼쪽에는 불타는 도시가 있고, 하늘은 태풍이올 것 같이 어둡고 요동친다. 엄청나게 일렁이는 물 안의 사람들은 마치 살기위해 배를 붙잡고 올라 올려는 것처럼 보인다.

이 그림은 들라크루아 생애 내내 이어지는 그의 스타일의 시초를 보여준다. 그의 뛰어난 인물 묘사 능력과 형식과 구도, 그리고 물감의 색채감은 기존의 교육제도를 벗어났지만 스타일을 바꾸지 않고 자신의 장점을 살려 자신만의 스타일을 고집했다. (안현배의 그림으로 보는 인류학 참고)

2 마르모탕 미술관

목적 및 내용

마르모탕미술관은 3백점이 넘는 인상파와 신인상파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클로드 모네의 그림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다. 이 건물은 과거에 마르모탕 가문이 수집한 미술품을 보관하기 위한 장소로 사용했었으나 폴 마르모탕이 자신의 수집품과 건물을 프랑스 예술아카데미에 기증하였다. 마르모탕 미술관에는 인상파의 그림 외에도 나폴레옹 시대의 예술품과 가구들, 단테가 작가로 활동하던 시절의 이탈리아의 회화들과 중세 르네상스 시대의 희귀 채색사본들도 감상할 수 있다.

3. 오르세 미술관

목적 및 내용

오르세 미술관은 루브르 박물관, 퐁피두 센터와 함께 파리의 3대 미술관으로 꼽힌다. 고대에서 19세기까지의 작품을 다루는 루브르 박물관, 1914년 이후의 현대 미술을 다루는 퐁피두 센터의 국립 현대 미술관과 비교하면 19세기 이후의 근대 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오르세

미술관은 시기적으로 앞의 두 미술관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오르세 미술관 [Orsay Museum] (저스트고(Just go) 관광지, 시공사) 미술관의 이름은 건물의 모태인 오르세 역에서 그대로 따온 것이다. 1900년의 만국박람회를 위해 호화롭게 건축된 역사(驛舍)는 20세기 초반까지 기차역과 호텔로 호황을 누렸으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폐쇄되었던 적이 있었다.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 세잔의 <커피포트 옆에 있는 여인> 외에 고흐, 고갱 등의 작품을 볼 수 있다. 또한 오르세 에서는 최근 2014년에 단테 신곡의 삽화가였던 귀스타프도레의 삽화전이 있기도 하였다.

오르세 미술관 - 윌리앙 아돌프 부그로[지옥의 단테와 베르길리우스]

르네상스 초기 이탈리아 문학의 걸작인 윌리앙 아돌프 부그로[지옥의 단테와 베르길리우스]]이다.

그림의 중심에는 나체로 목 부분을 물어뜯고, 뜯기고 있는 두 사람과 뒤에는 옷을 입고 있는 두 사람, 단테와 베르길리우스가 있다. 이 장면은 신곡의 지옥에서 영원히 서로 뜯기라는 형벌을 받은 유명한 위조범 잔니 스키키에게 목을 물리는 이교도 연금술사 카포치오와의 절망적인 싸움을 묘사한 것이다. 이 그림은 완벽한 기술을 갖춘 '잘 그린' 그림 이였으나, 이 그림은 20 세기 내내 환영받지 못했다. 18세기에 그려진 것이라면 받아들여졌겠지만, 화가 부그로가 인상파 작가들과 대립하는 입장이었던 보수 관학파였기 때문에 그의 작품까지도 경원시 되었다. 빨리 성공하고 싶은 젊은 화가들의 정통적인 방법은 국립 미술학교에서 유명한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국가 주최 경연에 해당하는 '정기 살롱'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 이였다. 미술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관 주도 콩쿨에서 주목을 받는다면 인생역전을 할 수 있는 기회였다. 또한 상 뿐 아니라 살롱 전 수상자에게는 이탈리아 로마로 유학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그는 살롱을 목표로 아카데미에서 요구하는 필수적이며 기본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작품을 완성했다. 그의 작품에서, 베르길리우스가 입고 있는 옷의 접힌 부분과 빛과 어두움의 사용은 그러한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이러한 노력으로 살롱 전에서 수상하고 존경받는 예술가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

4. 오랑주리 미술관

목적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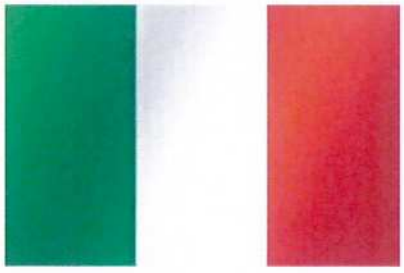
프랑스, 파리에 위치하고 있는 오랑주리 미술관(Musée de l'Orangerie)은 프랑스의 근대 회화를 주로 전시하는 프랑스의 국립미술관이다. 오랑주리(orangerie)는 '오렌지 온실'이라는 뜻으로 과거에는 겨울철, 루브르 궁전의 오렌지 나무를 보호하는 온실로 사용되었다고 전해진다.

1927년에 개관한 오랑주리 미술관은 모네(Claude Monet)의 [수련(Water-lily)] 연작을 비롯한 훌륭한 회화 컬렉션을 갖추고 있다.

폴 기욤과 장 발터의 컬렉션은 한 층을 할애하여 쓰여진다. 폴 기욤은 20세기 초, 파리 미술계를 리드한 아트 딜러였으며 어려운 미술가들을 후원하는 일을 했다. 그가 사고로 죽자

그의 아내는 발터와 재혼한다. 발터마저 죽게 되자 그녀는 프랑스 정부와의 합의 끝에 2번에 걸쳐 작품들을 정부에 위임하였다.. 이 곳 에서는 모네, 피카소, 세잔, 루소 등의 작품을 볼 수 있었다.

이탈리아



시간대	UTC+1
수도	로마
종족구성	라틴 족
공용어	이탈리아어
종교	가톨릭교(90%),
국제전화	+39
통화	유로화
인구	5800 만 명

밀라노

포강의 지류인 티치노·아다두 하천 사이의 비옥한 평야부에 자리한다. 예로부터 교통의 요지로서 발달한 북이탈리아 공업지대의 중심도시이다. 켈트인의 취락에서 기원하여 로마시대에는 메디올라눔이라고 불리는 북부 이탈리아의 중심지로 번영하였다. 374년에 성(聖)암브로시우스가 밀라노의 대주교가 되면서부터 밀라노는 북부 이탈리아의 종교적인 중심지가 되었다.

5. 밀라노 대성당

목적 및 내용

밀라노 대성당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성당으로 세계적인 고딕양식의 걸작으로 꼽힌다. 축구 경기장의 1.5배 넓이로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당과 스페인의 세비야 대성당 다음으로 가톨릭 대성당으로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크다. 다섯 개의 아일이 입구에서 제단까지 이어지고, 거대한 석조 기둥이 네이브를 지배하는 실내는 4만 명의 방문객을 수용할 수 있게 건축되었다. 대성당은 흰 대리석의 장대한 건축물로 보는 이를 압도한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는 135개의 첨탑은 고딕 양식의 특징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벽과 벽감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조각 작품들로 채워져 있는데, 총 3,159개의 조상(彫像) 중 2,245개는 건물

외부에서만 볼 수 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조각상은 '작은 성모'라는 뜻의 <마돈니나(Madonnina)>로 가장 높은 스파이어 위에 서 있으며 3,900장의 금박으로 덮여 있다.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세계 건축] 1001, 2009. 1. 20., 마로니에북스) 오랜 시간이 소요된 만큼 고딕양식 외에도 각 세기마다 유행했던 다양한 건축양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베니스

베네치아만(灣) 안쪽의 석호(潟湖:라군) 위에 흩어져 있는 118개의 섬들이 약 400개의 다리로 이어져 있다. 섬과 섬 사이의 수로가 중요한 교통로가 되어 독특한 시가지를 이루며, 흔히 '물의 도시'라고 부른다. 베네치아는 로마·피렌체와 더불어 이탈리아의 중요한 관광지이다. 대학 및 시(市) 동부의 현대미술전시장에서의 국제비엔날레, 리도의 국제영화제, 페니체 극장에서의 음악 등 문화활동도 활발하다. 그러나 구시가지는 면적이 한정되어 있고, 현대 생활에는 편리한 환경이 될 수 없으므로 대안부의 도시화가 현저하다.

6. 산마르코 광장

목적 및 내용

산마르코광장은 베네치아에서는 도심의 중심부에 있으며 성당을 중심으로 ㄷ자형이 이루어진 회랑 안쪽 넓은 마당을 일컫는다. 나폴레옹은 이곳을 세계에서 가장아름다운 홀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광장의 중심에는 (중세시대 2명의 베네치아 상인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훔쳐온) 성마르코의 유골을 모시기위해서 세워진 산마르코대성당과, 그 앞에 우뚝 솟아있는 종탑이 있다. 베네치아 석호 방향으로는 베네치아 공화국 정부건물이었던 두칼레궁전과 이 도시의 수호신으로 여기는 날개달린 사자상과 성테오도르상이 우뚝 서 있다. 광장 한 쪽편의 베네치아 또 다른 상징 중 하나인 종탑이 있다. 붉은 벽돌로 쌓은 단순한 형태의 종탑으로 높이 98.6m의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원래는 1514년에 세워졌던 것이 1902년에 붕괴되어 1912년에 현재의 형태로 복원되었다고 한다.

7. 산마르코 대성당

목적 및 내용

2명의 상인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가져온 성마르코 유골의 납골당으로 세워진 것이다 그후 성마르코는 베네치아의 공화국의 수호성인 이 되었다 115세기 말에 현재의 산마르코성당이 재건되었는데 이 재건공사에 롬바르디아의 건축가와 석공 이 상부구조 건축에 참가했다. 산마르코 성당
의 건축양식은 비잔틴 건축의 대표적인 양식으로 유명하다. 그리스 십자형의 바실리카로 다섯 개 의 동방적인 돔을 받치고 있으며 파꽃형의 아치와 고딕풍의 천개가 이어진 정면(피사드)을 가지고 있고 아름다운 대리석 건축으로 황금빛의 배경을 지닌 모자이크 벽화로 장식되어있다. 베네치아 시민은 동방을 침략할 때마다 이 건축을 장식할 여러 가지 물건과 조상부조 등을 가져오는 습관이 생겨 이 건물은 그런 것들로 장식되었다
(광장에서 바라본 대성당) (산마르코 대성당)

8. 두칼레 궁전
목적 및 내용
두칼레 궁전은 베네치아 공화국의 총독관저였던 건물을 지금은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베네치아 고딕 양식의 대표적 건축물로 베네치아의 권력과 영광의 상징인 이 궁전은 9세기에 만들어져 여러 차례 개축을 거친 후 완성되었다. 다른 건물과는 달리 외관을 흰색과 분홍색 대리석으로 꾸며 산뜻하고 우아한 느낌을 준다. 특히 바닷가에서 바라보면 파사드의 장식창 격자와 규칙적으로 뻗어 있는 기둥이 무척 멋있다. 성당의 안뜰에는 르네상스식 멋진 조각들이 자리한다. 밑의 사진은 두칼레 궁전의 27번째 방 '대회의실'에

있는 그림이다. 베네치아 왕국의 최고 권위를 지녔던 법관들의 회의장 이였던 곳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유화인 틴토레토의 ;파라다이스'라는 그림이다

피렌체(Firenze)

13세기에 토스카나 맹주가 된 피렌체는 14~16세기 정치, 경제, 문화 방면에서 이탈리아 최강의 도시국가로 번성했다. 아름다운 구릉과 아르노 강을 끼고 있는 예술의 도시, 꽃의 도시(Florence)라고 불리는 화려한 피렌체가 번성한 시기는 15세기 메디치 가문의 통치를 받을 때였다. 이때 문화, 예술, 정치의 발전이 최고조에 이르러 피렌체는 르네상스의 발상지가 되었다. 이탈리아에서 매혹적인 도시 중 하나이며 르네상스의 요람이자 미켈란젤로, 단테, 마키아벨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고향이고 역사, 예술, 문화유산의 보고이다. 중세의 모습과 르네상스의 유산인 화려한 건축물과 유명한 명작들은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져 피렌체 여행의 볼거리를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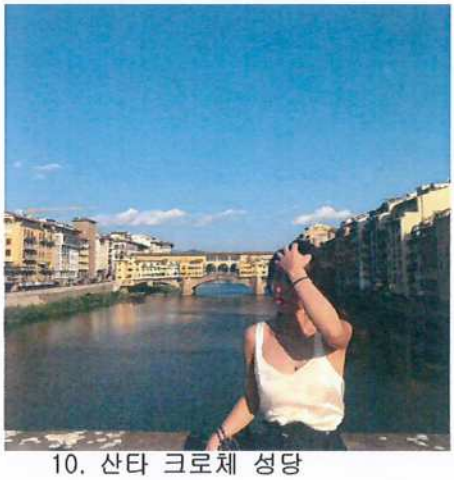
9. 베키오 다리

목적 및 내용

아르노강 위의 다리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1345년에 건설되었으며 로마시대의 마지막 다리로 알려져 있다. 1944년 연합군의 추격을 받던 독일군이 강 양쪽 기슭의 집을 모두 파괴했으나 베키오 다리만 남겨두었다고 한다. 원래 이 다리에는 푸줏간, 대장간, 가죽 처리장 등이 있었는데 1593년에 페르디난도 1세가 시끄럽고 악취가 난다며 모두 추방하였고 대신 금세공업자들이 다리 위의 상점에 세들었다.

이 다리가 유명하게 된 것은 피렌체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라는 사실도 있지만 단테의 사랑이야기로 유명한 곳이다. 1274년 5월1일 피렌체의 부유한 은행가 폴코 포르티나리의 저택에서 토스카나 지방의 전통 축제인 칼렌디마지오 축제가 열렸다. (칼렌디마지오는 5월의 첫날 이라는 뜻으로 봄을 찬양하며 즐기는 축제) 이 축제에서 당시 9세의 소년 단테는 귀엽고 아름다운 소녀 베아트리체를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된다. 그 후, 9년이 지난 18세때 그녀를 다시 만났지만 그때는 이미 그녀가 결혼 한 후였다고 한다. 이후 결혼한 지 3년 만인 1290년 그녀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단테는 괴로워하며 평생 그녀를 그리워했다고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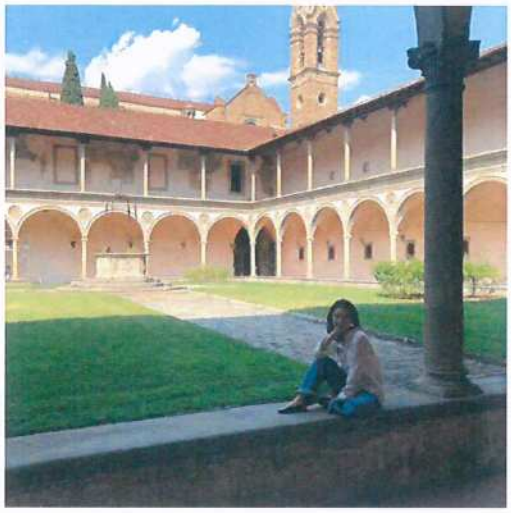
(사진 : 멀리 보이는 베키오 다리)



10. 산타 크로체 성당

목적 및 내용

1294년 아르놀포 캄비오가 기공하여 1442년에 헌당된 고딕 성당이다. 주간(柱間)을 넓게 잡고 바실리카식 장식 천장을 채용했으며, 구조상의 특징은 시에나 대성당에 가깝다. 당내에는 단테, 미켈란젤로 등 이탈리아의 유명인들의 기념묘가 있으며, '피렌체의 판테온'이란 이름도 있다. 페르치 가(家) 예배당과 발디 가 예배당에 있는 조토의 벽화를 비롯하여 타데오 가디, 기타 벽화, 도나텔로의 『십자가 상』과 『수태고지』 부조 등, 14~15세기의 예술품을 많이 소장하고 있다. (미술대사전(용어편), 1998., 한국사전연구사)
(산타 크로체 성당내부)



단테의 무덤

산타 크로체 성당(이탈리아어: Basilica di Santa Croce, 성 십자가 성당)은 이탈리아 피렌체에 위치한 프란치스코회의 주요 교회이자, 로마 가톨릭교회의 소 바실리카이다. 성당의 자리로 선택된 첫 자리는 피렌체 성벽 외각의 습지대였다. 미켈란젤로, 갈릴레오, 마키아벨리, 시인 포스콜로, 철학자 젠틸레, 작곡가 로시니 같은 이탈리아의 가장 저명한 이들이 묻힌 곳이기도 하며, 이를 통해 이탈리아 영광의 교회 (Tempio dell'Itale Glorie)로도 알려져 있다. 성당 앞으로는 피렌체가 자랑하는 인물 단테 알리기에리의 동상이 서있다. 원래 단테의 동상은 산타 크로체 광장 중앙에 있었지만 1966년 홍수로 자리를 옮긴 것이라고 한다. 또한 이곳에는 단테의 가(假) 무덤이 있는 곳이다. 후일 흑당 정권이 무너진 후 피렌체 정부와 시민들은 단테에게 귀환을 호소했으나 자신을 추방했던 조국에 대한 단테의 노여움은 풀리지 않아 귀국을 거부하고 유랑생활을 계속하다가 1321년 라벤나에서 세상을 떠났다. 산타 크로체 성당에는 비록 단테의 유해가 없는 가짜 무덤이지만 그의 업적과 명예를 기리기 위한 목적으로 무덤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사진 1: 산타크로체 성당내부에 있는 단테의 무덤 앞, 성당 앞 에 세워진 단테의 동상 앞)

11. 단테의 생가 및 단테 박물관

목적 및 내용

원문으로 museo casa di Dante라고 하니 museo는 박물관, casa는 집, 즉 박물관 단테의 집이다.

이탈리아 중세를 대표하는 시인 단테(1265~1321)가 태어난 집으로 사실 단테의 실제 생가는 아니다. 단테의 생가 즉 단테 기념관은 단테 탄생 700주년이었던 것을 기념하여 1965년 처음 문을 열어 일반인에게 공개되었다. 안으로 들어가면 3층까지 있으며 일곱 개의 방에 걸쳐 단테의 침실과 서재등을 재현해 놓았다. 또한 그의 행적을 시대별로 정리해 놓은 자료들과 그의 작품에 관련된 여러 예술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그중, 산드로 보티첼리가 그린 <신곡>의 삽화도 이곳에 전시되어 있다.

(사진 왼: 단테 박물관에 들어가는 모습 사진 오: 그의 침실을 재현해 놓은 모습)

12.산타마르게리타 성당

목적 및 내용

그의 생가 옆 골목에 있는 작은 성당으로 아홉 살 소년 단테가 베아트리체를 자주 만났던 곳이라고 한다. (후일 성인이 된 단테는 18살 꽃다운 처녀로 성장한 베아트리체와 산타트리니타 다리 앞에서 조우(遭遇)한다. 하지만 이때 단테는 이미 젬마 도나티라는 여인과 결혼한 후였고 그녀 또한 다른 남자와 결혼한 후 였다.) 베아트리체는 25살의 나이에 요절, 이 산타마르게리타 성당 묘지에 묻혔다.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단테의 아내 젬마의 묘도 이곳에 있다. (사진 : 산타마르게리타 성당 앞)

로마(Rome)

로마는 이탈리아의 수도이자 유럽인들의 정신세계에 주춧돌이 되어온 바티칸 시국의 고향이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3,000년 이상의 역사와 신비로움을 간직한 고도이다. 또한 유럽 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올린 르네상스의 중심이기도 하다. 로마의 안식처가 되었던 7개의 언덕, 로물루스와 레무스의 건국신화, 노예 반란의 상징인 스파르타쿠스,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말로 유명해진 루비콘 강, 클레오파트라가 코가 1cm만 낮았더라면 달라졌을 것이라는 로마의 역사, 사투의 혈전이 벌어졌던 콜로세움, 동전으로 행운을 바라는 트레비 분수, 청순의 상징 오드리 헵번의 스페인 광장, 거짓을 삼켜버리는 진실의 입, '쿼바디스 도미네'를 외치며 절규한 베드로의 혼이 담긴 세계 최대 규모의 산 피에트로 대성당, 로마의 보고 바티칸 시국 등 사연 많은 역사와 신비를 간직한 로마이다.

13. 콜로세움

목적 및 내용

콜로세움은 70년경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에 의해 건설이 시작되었으며 80년에 건축이 끝나 100일 축제 기간 동안 그의 아들인 티투스 황제가 개막식을 올렸다. 온천 침전물 대리석으로 건축된 이 커다란 원형 건물은 처음에는 팔라비아누스 원형 극장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

으며 본래는 비공식 이름이었던 콜로세움(Colosseum)의 유래에 대해서는 원형 경기장 근처에 있던 네로 황제의 거대한 청동상(Colossus Neronis)과 명칭이 혼동되었다는 설과 '거대하다'는 뜻의 이탈리아어 콜로살레(Colossale)와 어원이 같다는 설이 있는데 중세에는 그 자체가 '거대한 건축물'이란 뜻으로 쓰이기도 했다. 이곳에서 열리는 검투사 경기를 보러 찾아드는 5만 명 가량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었다. 콜로세움은 바깥 전경과 내부의 모습이 매우 멋있기도 하고 약간 척박한 듯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아마 콜로세움에서 죽어나간 용사들의 기운 때문일지도 모른다. 밤에 보는 콜로세움의 야간 투광 조명은 과거의 치열한 투사들의 용기를 보여주듯 굉장히 웅장하다.

14. 판테온

목적 및 내용

판테온은 그리스어로 '모든'을 뜻하는 'pan'과 '신'을 뜻하는 'theon'이 합쳐진 말로서, 모든 신들을 위한 신전을 뜻한다. 로마의 황실 조형물인 판테온은 제국이 형성된 이후 처음으로, 새로운 원수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게 된 평화로운 '5현제 시대(Five Good Emperors, 네르바, 트라야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우스 피우스, 아우렐리우스)를 그 배경으로 한다. 로마 제국의 절정기에 건립된 판테온은 117년에서 137년까지 통치한 하드리아누스 황제에 의해 건립되었다. 판테온은 직사각형의 구조를 가진 고전적 현관인 프로나오스(pronaos)와 원형건물(rotunda)이 합쳐진 구조를 가진다. 원형건물은 로마의 건축사에 있어서 판테온 이전에도 존재해 왔지만, 그 거대한 규모와 목적은 새로운 것으로서 창조성을 가진다. 원형의 돔은 하늘(천국)을 상징하기 위한 의도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우주, 조화의 이미지를 이룬다.

판테온은 르네상스 시대 판테온은 무덤으로 사용되었는데 이탈리아의 거장 화가였던 라파엘로와 카라치가 묻혀져 있고 이탈리아의 왕 빅토리오 임마누엘레 2세, 움베르토 1세도 판테온에 묻혀져 있다. 현재의 판테온은 가톨릭 성당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미사가 집전되거나 가톨릭 종교 행사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판테온이라는 명칭은 오늘날 국가적 영예가 있는 자에게 바쳐지는 건물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15. 트레비분수

목적 및 내용

트레비 분수는 세 갈래 길(Trevia)이 합류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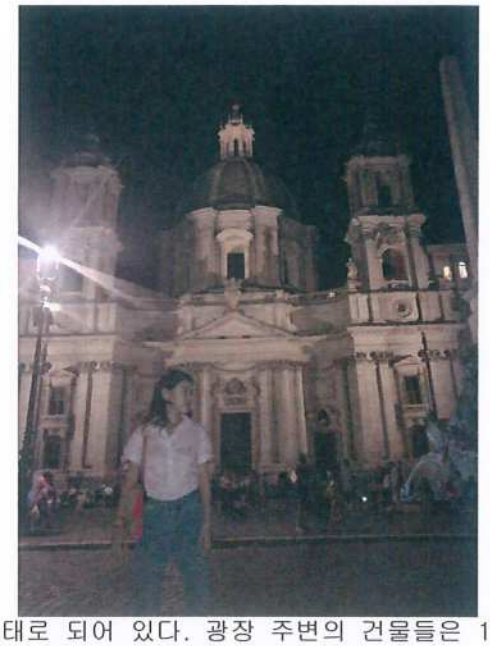
팔라초 폴리(Palazzo Poli)의 건물 한쪽 면을 화려하고 역동적인 조각군들로 장식하고 있는 트레비 분수는 로마에서 볼 수 있는 마지막 바로크 양식의 걸작으로 상징되는 명물 중의 하나다. 트레비 분수는 1453년 교황 니콜라우스 5세가 고대의 수도 '처녀의 샘(Acqua Vergine)'을 부활시키기 위해 만든 것에서 시작된다고 한다.

1726년, 교황 클레멘스 13세 시절에 니콜라 살비가 설계를 담당하고 30년의 공사 기간을 거쳐 완성되었다. 이 분수 가운데에 있는 조각상은 바다의 신 넵튠(포세이돈)이고, 그의 아들인 반신반어의 바다의 신 트리톤이 나팔을 불면서 이끌고 있는 두 마리의 말은 각각 잔잔한 바다와 격동의 바다를 상징하는데 이 아름다운 배경 조각은 피에트로 브라치의 작품이다. 넵튠 신 좌우에 있는 석상은 풍요와 건강을 상징한다. 이 분수의 물은 기원전 19년 아그리파에 의해 축조된 수로를 통해 들어오는데, 왼쪽 상부에 있는 부조는 아그리파 수로 축조에 관한 사실을 담고 있다.

16. 나보나 광장

목적 및 내용

로마에서 가장 특징적이고 아름다운 광장으로 평가받는 광장이다. 고대 로마시대에 전차경



기장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좁고 길게 뻗은 형태로 되어 있다. 광장 주변의 건물들은 1세기의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세운 도미티아누스 스타디움(Stadium of Domitianus)의 관람석 자리를 토대로 건설되었다. 광장 일대 건축물의 대표적 양식은 바로크 양식으로 넵튠분수, 모로분수, 피우미분수(Fontana Dei Fiumi)와 주변 건물들이 함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다. 광장 중앙에 있는 피우미분수는 베르니니가 디자인했다. 피우미분수에 조각되어 있는 4명의 거인은 갠지스강·나일강·도나우강·라플라타강을 나타낸다. 광장 남쪽의 모로분수는 돌고래와 싸우는 이디오피아인의 모습을, 북쪽의 넵튠분수는 넵튠이 문어와 싸우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다. 나보나광장 [Piazza Navona] (두산백과 참조)

17. 스페인 광장

목적 및 내용

17세기에 교황청 스페인 대사가 이곳에 본부를 두면서 스페인 광장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특히 영화 <로마의 휴일>에서 오드리 헵번이 아이스크림을 먹는 배경으로 나온 스페인 계단 주변이 유명하다. 1722년에 건립된 137개의 우아한 스페인 계단을 올라가면 언덕 위에 삼위일체 성당(Trinita dei Monti)이 있고 그 앞에는 성모마리아를 기념하는 원기둥이 세워져 있다. 계단 바로 앞에 있는 바르카차의 분수(Fontana della Barcaccia : 낡은 배의 분수)는 테베레 강에서 와인을 운반하던 낡은 배(바르카차)를 본떠 만든 것으로 이탈리아 바로크를 대표하는 조각가이자 건축가인 로렌초 베르니니의 아버지 피에르토 베르니니가 제작했다. 로마에 홍수가 지나간 후 이곳에 조그만 조각배가 하나 남아 있었는데, 이 조각배에서 영감을 얻어 17세기에 만들었다고 한다. 스페인 광장 [Piazza di Spagna] (저스트고(Just go) 관광지, 시공사 참조)

(사진: 스페인광장의 스페인 계단에서 만난 한국친구들과 외국친구들)

18. 바티칸 시티

목적 및 내용

세계 가톨릭의 본산으로 성 베드로 사원과 바티칸 궁전 등이 있으며, 교황이 거주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성스러운 곳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 조그만 국가의 경계 안에는 뛰어난 예술품과 건축물들이 있다. 지명은 라틴 어의 바티카누스 모우스(Vaticanus Mous)에서 유래되는데, 이는 '신탁(神託)을 받은 언덕'이라는 뜻이다.바티칸시티에서는 교황이 원수(元首)로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며, 교황청은 전세계 가톨릭 교회를 통치하는 중앙 기관이다.

바티칸의 중앙에 있는 산피에트로 대성당(St Peter's Basilica)은 이중 콜로네이드(회랑)로 만들어졌으며 전면의 원형 광장이 있으며 궁전·정원과 인접에 있다. 성 베드로의 묘지 위에 세워진 이 대성당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종교 건축물이다. 이 건축물은 라파엘로(Raphael)·미켈란젤로(Michelangelo)·베르니니(Bernini)·마데르나(Maderna)·브라만테(Bramante)를 비롯한 많은 예술가들의 천재성이 결합된 산물이기도 하다. (세계지명 유래 사전 2006. 2. 1.)

1656년 대성당 앞의 공간 보수 임무를 맡은 조각가이자 건축가인 잔 베르니니(Gian Lorenzo Bernini)는 도리아 양식의 포르티코(porticoes, 대형 건물 입구에 기둥을 받쳐 만든 현관 지붕)로 2개의 거대한 반원형 건물들을 지었다. 그리고 이 두 반원형 건물들 사이의 쭉 뻗은 정면에 광장이 오도록 설계해, 광장을 통해 대성당과 연결되는 외관을 만들었다. 이 외관은 교회가 전체 기독교를 포용한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었다.

19. 천사의 성

목적 및 내용

130년 하드리아누스가 직접 설계 및 의뢰한 자신의 개인 영묘로, 1년 뒤, 하드리아누스 사후에 안토니누스 피우스가 완성한 원형 건축물이다. 아우렐리아누스 황제는 하드리아누스의 영묘를 에워싸는 성채를 올리고 그의 이름을 붙였다. 6세기에 산탄젤로 성은 영묘로서의 기능은 사라지고 교황의 성채라는 새로운 기능을 갖게 되었다. 13세기에 교황 니콜라스 3세는 환형 성벽 위에 파세토(이탈리아어로 '복도'라는 뜻)를 건축함으로써 현재의 산탄젤로 성(천사의 성)과 바티칸 시티를 연결하였다. 이 비상용 '비밀' 탈출로는 바티칸이 포위될 때마다 수많은 고위 성직자들의 목숨을 구했다고 한다. 성의 지붕 테라스에서 도시의 장대한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은 대천사 미카엘이다. 6세기에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가 흑사병을 진압하는 천사의 환영을 본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이다.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세계 건축 1001, 2009. 1. 20., 마로니에북스)

3. 도전 과제의 성과

-「단테-신곡」 텍스트 완독
- 23살 대학생의 27일간의 유럽여행
- 여행을 통한 내적 성숙 및 인문학적 소양 획득
-여행을 통해 인문, 지리, 역사, 예술 등 다양한 방면의 견문을 넓히고 이를 통해 분석적이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을 배움
- 여행을 통해, 책을 집필할 내용 구성 획득 (경험 및 일기, 사진과 작품 활동 등)

4. 자기평가

나는 여행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다. 물론 떠나기 까지가 제일 힘들었다. 주 전공과 복수전공, 부전공을 함께 병행하면서 일까지 소화해온 나는 너무 지쳤고 포기하고 싶었다. 내 인생에서 '나'는 없고 목표 없이 달리기만 하는 '좀비'만 있었다. 하지만 우연하게 도전학기라는 기회가 주어졌고 나는 겁 없이 27일 간의 유럽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준비하면서 덜컥 겁이 났다. 혼자 해낼 수 있을까? 갑자기 주어진 긴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여행일정을 짜면서 고등학교 이후로 처음 이런 계획을 짰나? 하는 물음에 문득 내가 지친이유가 계획 없이 달리기만 해서 아닌가 하는 대답을 얻었다.

한국을 떠나서 파리에 도착했을 때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 다음날 파리의 시내로 나왔을 때에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좋지 않았다. 머릿속은 걱정들과 죄책감으로 가득했다. 나는 이러한 기회를 즐길 줄 몰랐다.

길거리 연주를 하는 사람들의 음악을 들으면서, 때론 작품에 심취하면서 나는 나에게 오롯이 집중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음이 편해졌다. 비로소 여행과 나에게 집중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나는 여러 작품들을 보면서 작가들의 생애를 이해하고 그들을 본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나를 위한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하고 스스로의 내적 성숙을 도모했다.

여행기간동안 나와 같이 여행 중인 한국인과 외국인들을 만났다. 나는 외국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갔고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다. 사실 영어가 많이 부족해 사전을 검색하고 번역기를 사용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지만,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좀 더 쉬운 언어를 선택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도전의식과 성취감 그리고 그들의 정을 느낄 수 있었다.

여행을 하면서 나는 '삶의 질'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리가 흔히 '공부'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들(유럽 권)은 자 국가의 유산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 이였다. 국가의 권력과 교육에서 나오는 결과물은 국민의 자부심과 지식을 높여주고 있었다. 또한 일조시간이 우리나라보다 약 3시간정도 길어 야외 활동시간이 많았다. 그래서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이나 취미활동으로 하루를 보내는 시간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많았다. 이러한 부분에서 아마 여유나 생기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많은 곳을 여행하고 또 많은 작품을 보고 많은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겼다. 탐방하고 공부하면서 인문학적 소양을 갖출 수 있었고, 유럽여행이라는 나의 작은 목표를 실천했다. 또 단테의 텍스트를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 내적 여유를 되찾았다. 물리적으로 27일이라는 짧은 시간 이였지만 보다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5. 최종 결과물

도전 과제의 특성상, 모든 여행의 일정 소화 후 결과물이 나오는 것을 고려해 최종결과 보고서의 도전과제 내용으로 대체하며, 책에 들어갈 텍스트와 교수님과 편집자 분과의 미팅을 통해 구체화된 출판계획서를 제출한다.

에세이 및 작품

여행 일기

7월 5일

드디어 내가 에펠과 함께 마주했다. 날씨가 쾌창하고 정말 커다란 구름이 여러 개 있다. 그늘진 곳에 하얀 피크닉 매트를 깔고 느낌있게 납작 복숭아와 샴페인을 꺼냈다. 그리고 감성적이게 'Paris'노래를 틀었다. 나만의 허세에 취해 에펠을 보다가 잠이 들었다. 거의 파리지엔이다. (함부로 잠들면 안된다. 나는 친여기에서 만난 친구가 잠에 들지 않았다.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한다.) 사실 이렇게 세팅하고 갖춰진 자리를 하고 있는 사람 대부분이 여행객이다. 하하

7월 7일

센강 위에서 강을 바라보고 있다. 강이 아득히도 어두워서 그 깊이조차 가늠되지 않는다. 빨간 불빛이 물에 닿는 곳은 따뜻할까. 물 안에서 불빛을 바라보면 얼마나 더 밝을까. 바람에 머리카락이 내 얼굴에서 시야까지 차르륵하고 살짝 가리는데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 괜히 의미가 있게 느껴진다. 지금 휴대폰 메모장에 기록 하고 있는 이 순간이 내 추억에 영원히 기록될까. 날씨가 너무나도 적당해서 떠오르는 기억이 많은 시간이다

7월 7일

기분 좋게 불어오는 바람. 튈르리 정원

7월 15일

여행 중 가끔, 엄청 울컥할 때가 있다.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고 오롯히 지금 감정에 충실할 때.

사실 나는 좋은 것을 보아도 눈으로만 보고 있을 뿐 머릿속은 다른 생각들로 꽉 차있었다.

부끄럽거나 후회스러운 일, 좀 있다가 어떤 것을 먹을지 등등 현재와는 전혀 다른 일들로 머리를 가득 채우곤 했다. 여행하면서도 줄곧 그래왔다.

숙소로 돌아가 하루 동안의 사진을 다시 보고서는 '이게 좋았나?, 이게 예뻤어.' 하곤 했다.

그 순간에 몰입하고 느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

둥둥둥둥 따라란. 따라란. 이제 다시 저 노래에 집중하러 가야겠다.

7월 20일

숙소에 아무렇게나 있는 정물.

여유로운 이순간이 너무 좋아서, 아무런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이 좋아서.

7월 22일

루브르 박물관 앞에서 열심히 춤을 추던 사람이 있었다. 레게머리를 투박하게 한 묶음으로

질끈 묶은 남자였는데 춤을 너무 잘 췄다. 아마 독무 영상을 찍고 있던 듯 했다. 잘 췄다. 두 번째도 잘 췄다. 세 번째도 잘 췄는데 그는 계속 같은 춤은 반복했다. 아마 마음에 들지 않았을 테지. 뭐가 그렇게 열심히 일까. 힘들지도 않나보다. 아닌가. 그는 힘들었는데도 완벽하게 하고 싶었겠지. 아, 그때 내가 힘들었을까.

7월 24일

하늘이 오묘하게 예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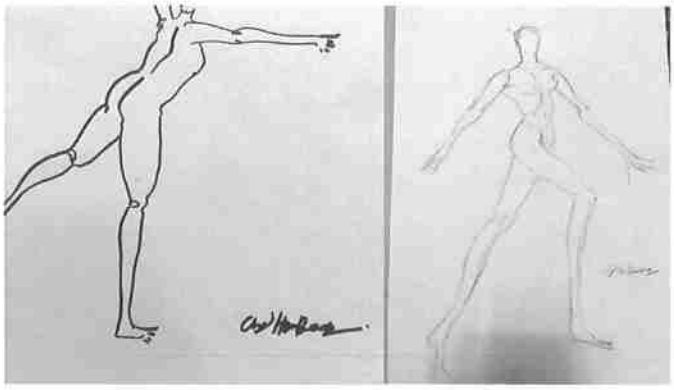
7월 27일
판테온 신전 앞
듣기 좋은 쇳소리.
멍하니 노래를 듣고 있다.
한국인처럼 보이는 여자 두 명이 나와 같이 멍하니 노래를 듣고 있는 모습을 보니 괜히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 궁금하다. 신전 앞에 꽤나 많은 사람이 노래를 듣고 있는데 다들 어떤 사연과 마음으로 멀리 여행을 온 것일까.

저 멀리 있는 분수에서 바람이 불 때 마다 살짝 씩 풍기는 비릿한 물 냄새.
옆에서 태우는 담배냄새.

꽤 반갑지 못한 냄새들이지만 불쾌하지는 않다.

매끈매끈한 돌길 위에 가게마다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 지나가는 차들의 전조등, 잡상인들이 파는 불 빛나는 장난감. 이모든 ----것들이 이 마치 연주가를 조명처럼 비추고 있다.
비탈진 길에서도 편편한 바닥처럼 편안하게 노래를 듣는 사람들. 그리고 나.

7월 28일



모든 사람이 똑같으면 어떨까.
다른 색, 다른 옷, 다른 생각.
모든 게 버려진. 아니 없어진 그때는 다 같을까.

처음으로 돌아간 사람들. 누드.

텍스트 작업 초본

우리 인생길 반 고비에
올바른 길을 잃고서 난
어두운 숲에 쳐했었네

아, 이 거친 숲이 얼마나 가혹하며 완강했는지
얼마나 말하기 힘든 일인가!
생각만 해도 두려움이 새로 솟는다.
-　　단테 『신곡-지옥편』 1곡 중에서

나는 이 구절을 읽고 바로 떠나고 싶어졌다. 나의 잃어버린 길을 찾아 나서기 위해서.

(눈을 떳다 작업물 삽입)

나는 책을 읽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승이 극중의 '연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신곡에서도 연옥은 지옥과 천국사이에 위치한다. 우연이 일치일까. 이승 또한 지옥과 천국의 갈래 길에 위치한다. 장소로써의 위치라기보다 선택지의 위치라고 하는 것이 맞겠다.
우리 (동양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전생이라는 것이 있다. 만약 우리의 생이 두 번째라는 가정이라면 첫 번째 즉, 전생의 죄를 씻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 이승으로 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승은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죄를 짓는 공간일 수도, 죄를 씻을 수도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신곡의 연옥에서는 정죄를 하지 못한다면 연옥에 머무르게 되고 정죄를 한다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단테는 연옥이라는 공간에서 정죄는 자유의지에 따른다고 했는데, 사실 아마 행복을 좇아 정죄를 할 가능성이 높겠다.
사실 연옥이 중세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데 만약 이것이 진짜 만들어진 이론이라면 이승을 설명하기 위한 공간이라고 나는 해석해보았다.
보통 연옥이라는 공간의 필요성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지옥과 천국의 흑백논리의 회색공간(정죄의 공간)이라고 말하기도하며 살아가는데 길잡이가 되어주고 희망이 된다고도 말한다.
그는 작품에 꽤 많은 실존인물과 동시대 사람들을 출현(언급)시켰는데 그가 미워한 베아트리체의 아버지는 실제로 금융업자였으며 금융업자는 가장 큰 죄를 지어 지옥에 갇힌다. 이와 같이 그의 작품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인생과 함께 했다. 연옥이 픽션인지, 논픽션인지 아직 알 수는 없으나 나는 이승과 함께 연결된 수평선이라고 생각했다.